

# 다문화 가정- 학생 Insight

 by neul ha

# 1. 다문화 가정의 중요성과 현실, 양상

## 1-1. 이론적 배경

다문화 범위: 혼인 귀화자 + 기타사유 취득자. 정책 대상은 국제 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 다문화 가정은 많은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전에 없었던 매매혼 형태의 다문화가정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로 동남아시아의 처녀들이 대가를 받고 우리나라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총각들과 국제결혼하는 사례로 형성된 경우이다. 이 경우 일부 국제결혼업체들의 외국인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돈만 강조하며 억지로 매치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경로로 결혼한 경우가 있다.

- 지자체의 경우 전문인력 육성,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
- 문화 인종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시급

→ 결국 다문화 비즈니스 모델이 부족

다문화 가정에서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는 무엇인지? 사업화가 가능한지?

1. 다문화 가정 맞춤형 교보재, 센터, 인력이 부족하다.

거주지역이 농어촌이 많아 사교육 접근성이 낮음.

○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한국어능력이 상이하여 학생 개별 한국어교육 제공이 필요하나 인력·인프라 등 자원 부족

→ 교보재와 더불어 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

논점1: 교보재를 만든다면 어떤 교보재를 만드는가?

→ 다문화 구성원 대상 스마트 러닝은 전무한 상태. 다문화 활용/교류 시장도 없음

[또한 구체적인 시장분석이 어려움. 설문조사나 인터뷰 필요. 무엇이 필요한지?]

## 다문화 가정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서비스?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생산자(공급자)도 먹거리가 있어야하지 않나?(수익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한다.(아이템 추천)

- 무엇을 해야하지? 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나? [실태조사, 인터뷰, 크롤링...]
- Center나 지자체에서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 프로그램은 누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노인, 대학생, 주부?

노인을 위한 직업추천 ← 다문화 학생 교육 매칭 서비스를 통해 공급

그러면 노인 교육은 어떻게 하지? 무엇을 교육해야하지?

노인은 취업을 못하고 있나?

e.g) 온라인 이러닝 과목은 어떤 것을 해야할까?(사교육 접근성이 낮으니까)

한국어 교육, 기술교육, 원데이클래스, 코딩교육, 온라인쇼핑몰 취창업 등

→ 그들의 Needs를 해결하는 서비스. 문제해결에 초점

대부분 이원화되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센터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게 대부분.

지자체에서 진행한다고 해도 이루어지는 장소는 대부분 다문화센터임.

위에서 말한 것은 어찌보면 콘텐츠에 일환이고 시급한 것은 센터에 확충과 그에따른 홍보 및 공급자 유치임.

# 다문화 가정 학생들

**pain1**

언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pain2**

문화 충돌

**pain3**

학업, 진로 문제


## pain1 AI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컨텐츠 요소)




 GPTers 그룹

**지피터스- AI로 교육/학습하기**

챗GPT와 같은 AI 도구로 교육과 학습에 활용한 사례를 나눕니다.



 TISTORY

**[교과서를 만화로 바꾸기] 고1 YBM(한) 5과 교과서를 만화로 그리기**

영어교과서가 만화로 다시 씌여진다면 학생들이 더 즐겁게 영어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허깅페이스에 올라온 인공지능으로 만화를 그릴 수 있는 ...

## pain2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아. 그러면 문화교육은 어떻게 해? (컨텐츠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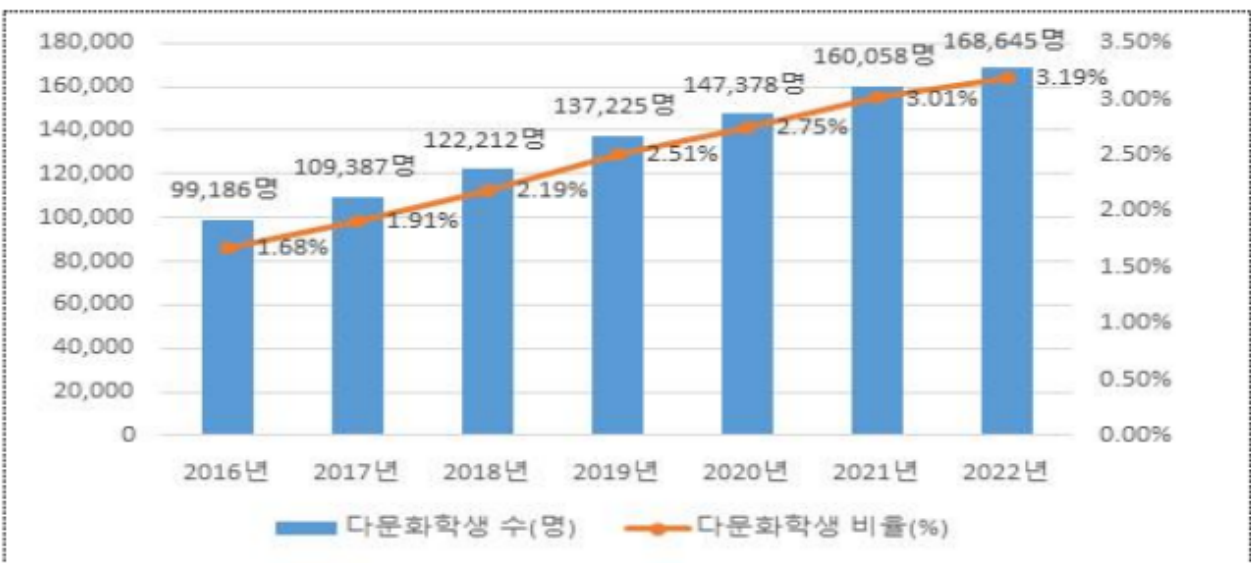
- 캐나다 사례

## pain3 교육은 받고 싶지만 교보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클래스의 경우도 불친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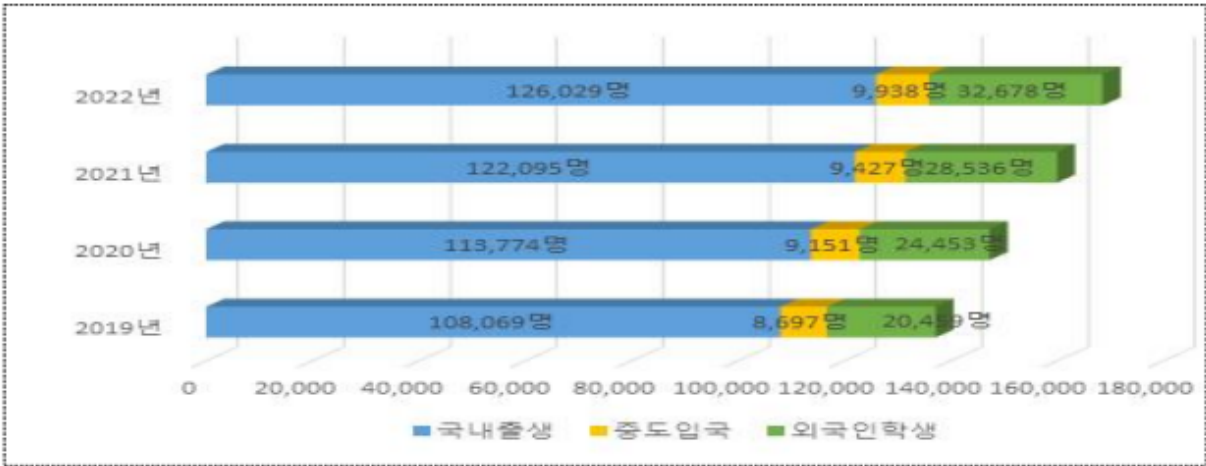
→ 다문화 교육 전문인원을 육성할 수 있는가? 그건 누가하는가? **은퇴자,노인?**

### □ 다문화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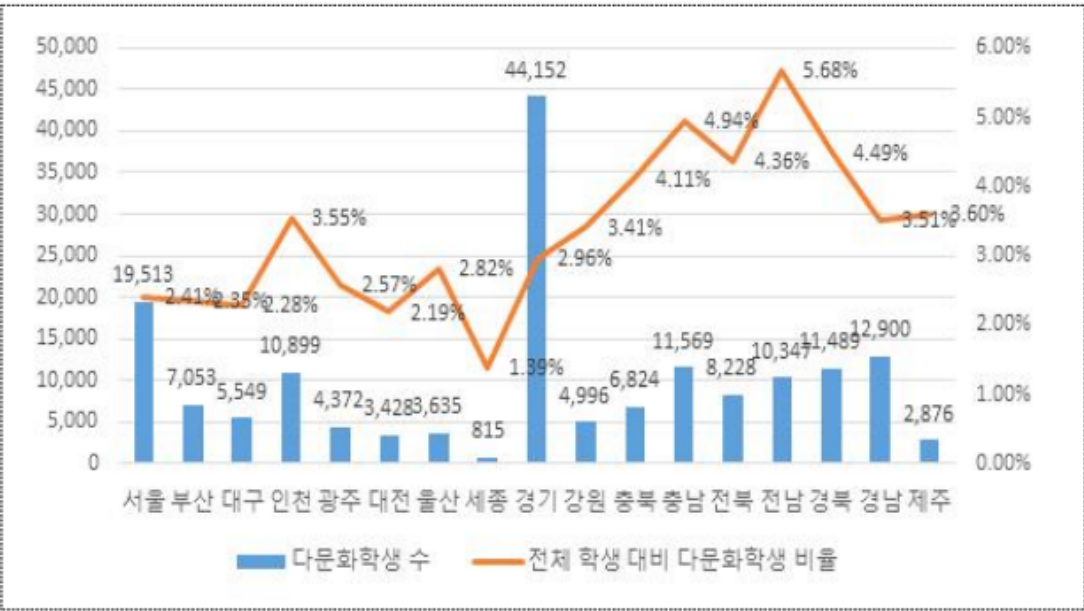
- **(총괄)** 다문화학생의 증가와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전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의 지속적 상승**  
※ 전체 학생 수 : ('19) 546만명 → ('20) 536만명 → ('21) 533만명 → ('22) 528만명  
- 최근 5년 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22년에는 **16만 8천명**을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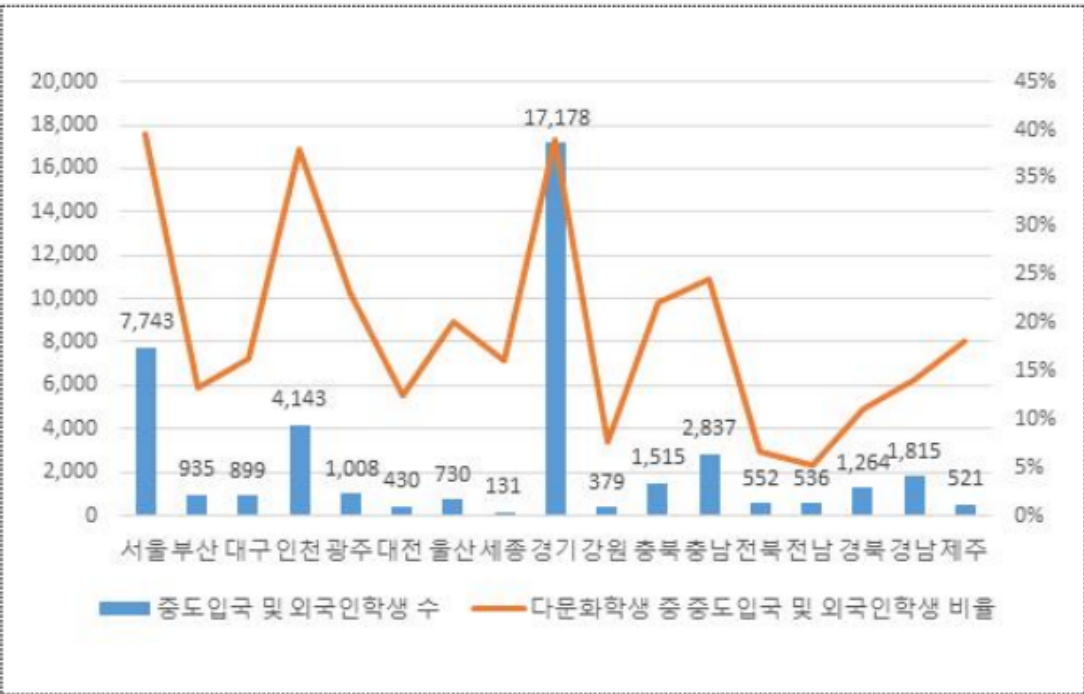
- **(유형별)** 국내출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의 증가세 뚜렷('22년 전년대비 약 12.3% 증가)



- **(지역별)** 다문화학생은 경기, 서울에 가장 많이 재학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은 전남, 충남이 가장 높음



-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은 경기, 서울에 가장 많이 재학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 중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비율은 서울, 경기, 인천이 높음





프로젝트에 녹일 수 있는가? + 공모전

- 공모전을 참가한다고 하셨으니...

이에 따른 저의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입지선정의 경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수상작에 있었습니다. 많은 해는 4개도 있었습니다.

정책 선정 & 의사결정에 있어서 입지선정이 외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모전으로 이를 해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머신러닝)

다문화가정이 결국 필요한 것은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설 및 커뮤니티적 요소. 다문화 학생인 16만인 것에 비해 그에 따른 시설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돌봄품앗이(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체험센터등 확대는 필연적인데...

입지선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데이터로 이에 따른 공급 확대 우선 지역을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문화 가정 부모도 한국인 부모와 마찬가지로 같은 실정이야.

이에 따라 아동이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거나. 돌봄 대체를 위해 비용이 지불되는 것은 같아.

따라서 다문화돌봄교실의 공급 확대가 시급한 곳을 선정하여 우선 확충이 시급하다.

변인변수 설정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다. 다문화가정이 많이 사는 곳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지역(공급미달 지역)을 골라야하니까

센터입지선정 기준이 무엇일까?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 그에 따른 데이터는 어떤 것을 수집해야할까?

우선 확충을 한 다음에는 ? 클러스링까지 완료한 뒤에 (감성, 기획적으로...)

서비스적으로 연결하려면? (다만,사업기획서를 만드는 것은 아니야!)

개인적인 생각으로 7주 프로젝트 선에서 시각적 서비스나 정보전달 서비스 선으로 해도 의의가 있을 듯?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분석의 의의를 새기면 좋을 것 같음.

시설을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는 없는 것 같아.

더불어 다문화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인프라란 다문화가정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콘텐츠적인 요소들 언어교육, 정체성교육, 커뮤니티적 요소

이것이 가능한 곳을 유치,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 매칭? 뭐... 전범위적이긴 하지만 서비스는 그러니까 설계가 치밀하게 필요하겠다.

상담데이터와 채용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콘텐츠 구상에 인사이트를 주면 될 것 같음?

- 성빈님이 소개해주신 서비스나 혜원님이 소개해주신 평가지표도 첨부가능하지 않을까?

표 1\_밀집거주지에 관한 주요 국내 선행연구 검토

연구자	분석 대상	분석 범위 및 단위	분석 기준 및 결과
이희연, 김원진 (2007)	여성 결혼이민자	전국	•출신 국가별 여성 결혼이민자수의 정주패턴 제시
		시·군·구	
손승호 (2008)	전체 외국인	서울	•출신 국가별 외국인 분포 수위지역의 변화 제시
		구 또는 동	
박세훈, 정소양 (2010)	전체 외국인	전국 또는 수도권	•체류 자격별 외국인수 기준치 이상 •체류 자격별로 6~9개 시·군·구
		시·군·구	
박윤환 (2010)	전체 외국인	수도권	•외국인과 내국인 간 거주지 분리 정도 제시(상이지수)
		읍·면·동	
김희철, 안건혁 (2011)	전문 인력 및 노동자	수도권	•외국인 커뮤니티 1개 이상 입지 •수도권 65개 시·군·구 중 16개
		시·군·구	
정지은, 하성규, 전명진 (2011)	전체 외국인	수도권	•출신 국가별 분포의 편향도와 표준편차거리(km) 제시 (바키측정지)
		시·군·구	
하성규, 마강래, 안아림 (2011)	전체 외국인	서울	•체류 자격별·출신 국가별 군집 및 공간적 비유사성 제시 (비유사성지수)
		구 또는 동	
이진영, 남진 (2012)	전체 외국인	수도권	•외국인의 거주지 특화지역과 분리지역 상위 10개 지역 제시 (입지제수, 상이지수)
		시·군·구	